

# 홍천군체육회장 누가 되나, 내일 판가름

군민스포츠센터 투표 실시  
박상록·이영욱 정책 발표  
소통·예산 투명성 등 약속

홍천군체육회장 선거가 15일 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진행되는 후보자들의 정견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천군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이날 오후 2시 후보자들에게 10분 이내로 정책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했다. 투표는 오후 2~4시 군민스포츠센터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체육회 35개 가맹단체장과 무작위로 추첨한 종목별 회원 등 127명이다.



홍천군체육회장에 출마한 박상록(사진 왼쪽)·이영욱(오른쪽) 후보가 오인철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체육회장에는 박상록(65) 전 체육회 실무부회장과 이영욱(63·기호순) 전 고성교육장이 출마했다. 박 후보자는 “종목별 단체와의 소통강화

로 동호인 사기진작과 민선 체육회의 자주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2002년 축구협회 상임 부회장, 테니스클럽 회장과 협

회장, 체육회 실무부회장 등 경험을 통해 생활·엘리트 체육의 실무행정에 밝아 민선 초대 체육회장의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현실감이 뛰어나고 동호인들과의 폭넓은 인맥이 장점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 내용 공개와 학교체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체육교사 24년, 교장·교육장 등 체육 실무와 행정을 경험한 체육 교육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 때 육상 선수로 활동했고, 체육 교과서 공동 집필과 책을 출간했으며 체육계의 폭넓은 인맥을 살려 고향의 체육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재혁

## 공공건축, 적정工期 산정 프로그램 만든다

국토부, 시설물별 표준작업량 정비  
데이터 수집 뒤 분석·활용체계 마련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현재 운용 중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건축물'에 대한 표준작업량이 빠져 있는 탓에 그동안 공공 건축공사의 적정 공기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정부가 건축물 등 시설물별로 표준작업량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공공 건축공사의 적정 공기를 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6면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기산정기

준'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기 산정기준'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출하는 공식을 제시한 게 핵심이다.

문제는 '공기 산정기준'에 건축공사의 준비기간과 작업일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공기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 건축공사 적정 공기 산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건축물 등 시설물별 표준작업량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 표준작업량을 제정하고, 시설물별 공기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박경남기자knp@

## 건축물 등 시설물별 작업량 수요조사·분석... '표준' 제시

뉴스 Focus

건축공사 적정 工期 산정 프로그램 마련

공공 건축공사는 기존 구조물 유무에 따른 철거공사 여부, 공사 전·중·후 이사 방식, 부지 크기·형태·위치, 공사규모·금액, 지하수위·암반 등 지반상태, 건축구조, 재료 및 건물형태 등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준비기간과 작업일수의 경우 도로·철도 등 토목공사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실제 '공기 산정기준'을 보면 공동주택

3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등 적게는 30일에서 길게는 90일의 준비기간을 무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건축공사에 대한 준비기간은 없다.

특히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작업일수를 말하는 작업일수 산출의 경우 건축공사에 대한 표준작업량이 제시돼 있지 않다.

'공기 산정기준'에 담긴 공종별 표준작업량은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하고 있다.

工期산정 기준 관리체계도 구축

공사기간 산출·변경절차 정비

공종별 적정기간 설정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매뉴얼 보급

건축공사는 가목이나 공기에 미치는 변수가 다양한데, 공종별 표준작업량마저 없는 탓에 적정 공기 산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물을 비롯해 도로·철도·수자원 등 시설물별로 표준

작업량에 대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거쳐 표준작업량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축공사에 대한 적정 공기 산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공 건축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축공사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 적정 공기 산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공사 적정 공기 산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국토부는 공기 산정 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 산정 및 변경 절차를 정비하고, 공종별 적정 공기 설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간이 공기산정 공식 마련,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적정 공기 산정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공사에는 '공기 산정기준'이 무용지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건축공사에 대한 표준작업량 등의 산출을 통해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knp@